

70여 년 세월 켜켜이 쌓인 남도의 한(恨)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박정희는 남조선노동당 소속이었다. 쉽게 말하면 공산당 당원이었다. 이로 인해 1948년 체포돼 죽을 고비를 넘겼다. 박정희를 살려 준 이는 채병덕·백선엽·김장룡 등이다. 채병덕은 일본 육사, 백선엽은 만주군관학교, 김장룡은 일본 헌병대를 나왔다. 이들은 박정희가 최소한 자신들과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정희도 일제(日帝)가 세운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남 박정희는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공(反共)을 전면에 내세운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第一)의(義)로 삼고..." 이는 쿠데타 직후 군부가 발표한 혁명공약의 제1항이다.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세대는 무조건 혁명공약을 외워야 했고, 외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때 '국시'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이나 이념)가 된 뜻인지 알 길이 없었던 어느 시골 학생의 '웃픈' 일화도 전해진다. '반공으로

국수를 삶고' 어찌고 했다가 선생님께서부터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우리는 그런 강요된 반공의 시대를 살았다. 시골 담배락 같은 곳에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같은 구호가 적혀 있던 시절이었다. '간첩 잡는 아빠 되고 신고하는 엄마 되자'라는 표어도 생각난다. 그때 여기저기 산자락 커다란 바위에 붉은 페인트로 큼직하게 쓰인 '반공 방첩'이란 네 글자도 흔하 볼 수 있었다.

희생자 유족들 숨죽이고 살아와

뻗속 깊이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던 내가 잠시 어린 시절 풍경을 회상해 본 것은 최근 '여순사건'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름 아니라 지난해 10월이었었다, 생면부지의 어느 독자로부터 몇 권의 책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받은 것이다. '주필님의 글을 접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로 시작한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할아버지께서 병어리 70년 귀머거리 70년,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좌제 빨갱이. 한이 켜켜이 쌓이고 쌓인 세월이젠 훌훌 털고 생활하다 가고 싶습니다. 주필님. 잘못된 역사 바로잡아 주시길 빌고 싶습니다." 편지를 보내온 이는 보성 북내면에 사는 이찬식 씨라고 했다.

편지만으로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조부께서는 여순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었다. 동봉된 책 중 하나는 '여순 10·19 72주년 추념 창작집'이었고 또 하나는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에서 발간한 잡지였기 때문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편지를 받은 이후 나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언젠가 시간 나면 한번 읽어 봐야겠다면서 밀쳐놓았다가 그만 책을 받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다 최근 여순사건특별법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문득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난해 편지를 받았을 무렵, 소설가 백지중 씨가 여순사건을 소재로 쓴 장편소설 '여수의 눈물' 단행본을 내게 보내온 사실도 떠올랐다. 다행히 책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에 휩싸여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 좌익 군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다며 국가의 제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사건'이다. 그때만 해도 똑똑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몰드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 미군정이 1946년 8월에 845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나 됐다고 한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14연대의 출동 거부로 일어난 봉기군(과거에는 반란군이라 했다)과 진압군의 무력 충돌은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

생과 피해를 초래했다. 이들은 여수에서 일어나 순천까지 진격했지만 며칠 만에 토벌군이 순천을 탈환하면서 산(지리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빨치산'이 된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여순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우리 군경(軍警) 토벌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이라는 점이다. 1만5000명의 희생자 중 무려 1만2000명. 그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참히 학살당했다. 더욱이 그 가족들조차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70년 넘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숨죽이고 살아야만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꼭

그날의 참혹했던 장면 중 특히 순천 낙안면 신전마을 학살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마을 사람들은 부상을 입고 산에서 내려온 열 네 살짜리 소년이 불쌍해서 상처를 소독해 주고 먹여주기도 주었다. 한데 이빨. 이 소문을 들은 면서기가 토벌대에 신고를 해 버린 것이다. 토벌대 대위는 주민 50여 명을 집합시킨 뒤 그 자리에서 스물두 명의 마을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데 이 같은 참혹한 현장은 신전마을뿐만이 아니었다. 여수·순천은 물론 구례·광양·보성 등 곳곳에서 이러한 처절한 비극이 잇따랐다. 나는 지금의 미안마처럼 혹은 그때의 광주처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잔혹한 '야만의 시대'가 있

었음을 알고 몸서리를 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날의 비극을 정부가 명명한 그대로 '여순반란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1995년에야 비로소 '여수·순천 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며 '반란'이란 두 글자를 지울 수 있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반란의 주체로 오인할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통한(痛恨)의 세월을 살아온 여수·10·19 유족들. 그들에게 최근 그러나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빛이 내리기 시작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그동안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여덟 차례나 발의된 특별법이 모두 무위(無爲)로 끝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된 것이다.

'여수 10·19'는 '제주 4·3'이나 '광주 5·18'과도 역사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정통성을 상실한 부당한 국가의 폭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 중 '광주 5월'과 '제주 4월' 관련 법안은 모두 통과된 반면 '여수 10월' 특별법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여아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한 호소한다. 이번에도말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그동안 켜켜이 쌓인 그들의 '70년 한(恨)', 이제 풀어 줄 때도 되지 않았는가.



화이자 백신 도착...75세 이상 접종 24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저장고에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특별 후속조치 본격화...전당 직제개정 착수

중심도시추진단 '후속조치 계획안'...재단설립·인력충원 방안 등 담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직제개정, 인력충원 방안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아특별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문화원)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 개발·제작 등 사업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당초 5년마다 수정 보완하게 돼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종합계획 수정) 또한 이번 아특별 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도시사업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31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변화를 반영한 수정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이 공유한 '후속조치 계획안'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추진단(추진단), 시민연대 대표,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특별 개정안 내용과 이후 후속조치 일정을 공유하고 지난해 11월 꾸리진 시민협의체 협약정신에 근거한 내용을 향후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이 공유한 '아특별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안에 따르면 전당 직제개정은 문화원 기능 흡수에 따른 증원 수요를 반영하되, 증원 인력 채용 소요기간(3개월)을 고려해 개정 절차를 조기 완료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3월 말까지 직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이후 행안부와 협의(3-5월)를 거쳐 6월 직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력 충원은 증원되는 신규인력(확대·전문 경력직)에 대해 오는 8월 중 채용절차를 마치고 법 시행일(9월)에 맞춰 정식 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무원 부문은 기재부와 협의 후 기능과 역할에 따라 문화원 공무원 중 소속을 변경해 8-9월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설립 또한 3월 말까지 추진단을 꾸리고 6월 까지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관·제규정 마련, 재단 조직 구성(정원 확보 등) 및 설립이사회 준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7월 중 법안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재단 출범은 법 시행일(9월)에 맞춰 재단 설립 등 기 및 기존 문화원이 해산됨으로써 마무리된다. 이밖에 전당 운영 활성화, 문화도시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 수정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된다.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 검토,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합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정기·수도권 고수익보장

20년경력. 010-3605-50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신
010-2860-4700
윤

분할합병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가쟁이(이하 '가쟁이'라 함)와 주식회사 지평이 한 '올'이란 한은 2021년 03월 2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올'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설 제530호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올'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3월 25일
"갑" 주 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05-4 영일동
회 사 명: 주식회사 가쟁이
사내이사: 안민오
"올" 주 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05-4
회 사 명: 주식회사 지평
사내이사: 안지훈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석일(510309-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장동길 114(장동동)
피상속인 망 박석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 가정법원 2021년 136호로 신청하여 2021년 3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3월 25일
• 상속인: 김숙희(531206-XXXXXX)
광주 북구 장동길 114(장동동)
• 신고기간: 2021. 3. 25. ~ 2021. 6. 3.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숙희의 주소

산행안내

3월28일(일)

▲광주Kj산악회 3월28일(일) 경기 의왕, 한남정맥&백운산,

광고 산행, 영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차장 07:30 * 다 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엔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여행구독 (062)220-0550